

## 《새로운 미래가 온다》

# 앞으로는 우뇌형이 성공한다

글 권영설(한국경제신문 가치혁신연구소장)

최근 경영의 화두는 변화와 혁신이다. 과거의 경험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빨라지고 심해진 변화의 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성장과 발전의 엔진을 찾을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이라는 얘기다. 경영자들마다, 이론가들마다, 또 각종 경영서적에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식의 경고를 내놓으면서 변화와 혁신은 유행어가 됐다. 그 결과 회사나 조직 사회에는 '변화 피로감'이나 '혁신 피로감'이 퍼져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경영진들이 각종 혁신 운동을 드라이브로 걸면서 회사원들은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지기까지 했다.

이렇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무감각해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종류의 논의들이 대체적으로 대안이 결여된 체 위기감만 조성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어디로 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 얘기가 없다.

그럼 점에서 다니엘 핑크의 명쾌한 책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단연 눈에 띄는 책이다. 왜 변하지 않을 수 없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제는 《A whole new mind(완전히 새로운 정신)》이다.

다니엘 핑크는 좌뇌와 우뇌의 특성으로 변화해야 하는 이유와 변화의 방향을 설명한다. 이제까지 성공방식이 좌뇌형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뇌형이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배경으로 핑크는 세 가지 요인을 꼽고 있다. 바로 풍요, 자동화, 아시아이다.

좌뇌는 생산성 혁명을 이끌어내는 논리의 원천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까가 승부의 관건이었다. 과거에는 그런 능력이 필요했고 좌뇌적 인재들이 많이 등용됐다. 그러나 이 시대의 풍요는 더 이상 생산성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동화도 같은 맥락이다. 인적자원의 기능 보다는 기계의 성능이 중요해진다. 기계가 좌뇌적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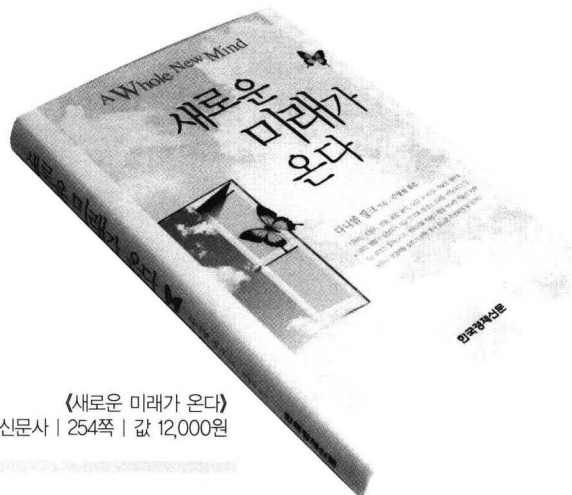
아시아는 서구 좌뇌적 인간들이 해오던 기능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아웃소싱하는 원천이 되었다. 중국의 세계의 공장 이 되었고 인도의 '좌뇌 천재' 들은 미국 IT 산업의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가들로 자라났다. 미국을 기준으로 볼 때 더 이상 좌뇌적 기능을 사용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과거의 경험과 성공 방식이 이제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한 변화의 동인이 있을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인재가 되려면 이전의 성공 경험을 잊고 성공 방식을 버리고 전혀 다른 정신과 자세로 새롭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이라는 기본적인 요건까지 감안하면 변화는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핑크는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우뇌적 성공방식으로 여섯 가지를 든다.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 등이 그것이다. 이는 우뇌적인 창의성과 감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 발휘될 수 있다. 핑크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우선 첫 번째로 디자인. 이제 더 이상 기능만으로는 안된다. 디자인으로 승부해야 한다. 단순히 기능만 갖춘 제품, 서비스, 경험, 라이프스타일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시각적으로 아름답거나 좋은 감정을 전해줄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야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고 있다. 이제 선택은 더 이상 최소한을 만족시키는 것일 수 없다.

두 번째는 스토리다. 이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스토리를 겸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보와 데이터는 어디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강력한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낸 사람들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인 컨테이너(container)의 시대가 아니라 그 내용인 콘텐츠(contents)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  
다니엘 핑크 지음 | 김명철 옮김 | 한국경제신문사 | 254쪽 | 값 12,000원

시대가 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조화다. 예전에는 집중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조화를 이뤄야 한다. 산업화 및 정보화 시대엔 집중과 전문화가 요구됐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업무가 아시아로 넘어가거나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인해 줄어들에 따라 그와는 반대적인 특질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겨났다. 작은 부분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 즉 조화가 중요해진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능력은 분석이 아니라 통합이다.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 이질적인 조각들을 다 함께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네 번째 특성은 공감이다. 예전에는 이 자리를 논리가 차지했었다. 논리적인 사고능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이지만 정보가 풍부하고 분석적인 도구가 발전한 세계에서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차별화를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다른 이를 배려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놀이다. 과거의 성공방식이었던 진지한 것만으로는 안된다. 웃음, 명랑한 마음, 게임, 유머가 건강 면에서나 사회적 성공 면에서 커다란 도움이 되는 시대가 왔다. 감성적인 전달에는 이런 즐겁고 가벼운 면들이 훨씬 유용하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의미다. 물질의 축적만으로는 이제 곤란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숨막힐 정도로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물질적 풍요는 수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생존투쟁에서 해방시켰고 좀 더 깊은 의미를 모색하게 이끌었다. 목적의식, 초월적인 가치, 정신적인 만족감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은 필수적인 재능으로 떠올랐다.

핑크의 책을 읽으면서 왜 더 이상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만으로는 안되는지 그 시대적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 왜 단순히 '지식산업'만으로 이 시대를 표현할 수 없는지도 짐작할 수 있게 됐다. 좌뇌적 성공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현실을 다시 보게 되면서 왜 창조와 혁신이 더 중요해지지는지도 감을 잡았다.

다만 우리 앞에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 미래 얘기를 들으면서도 가슴이 뛰지는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감성적이고 엉뚱하고 유연한 사람들이야 드디어 제 세상을 만난 것이지만 주입식 교육에, 좌뇌적 사고방식을 철저히 훈련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우뇌적 세상은 험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도전의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 정보도 모두 쟁겨야하고 거기에 더해 하이컨셉, 하이터치형 인간이 돼야 하니 말이다. 가슴 뛰는 미래 얘기를 더 듣고 싶다. **한경**



● 이 글을 쓴 권영설은

현재 한국경제신문 가치혁신연구소 소장,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전문위원과 대한민국 혁신포럼 사무국장 겸직하고 있다.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MBA(전략전공)과정을 마쳤다. 경영혁신 전문가로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변명》(당신의 경제수명은 몇 년입니까?) 등의 책을 썼고, 《경영이란 무엇인가》(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을 번역했다.